

“깨달음엔 남녀차별 없어요”



△부처님 오신날 미국 관음선원 프라비덴스 센터에 모인 승산스님(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과 제자들.

화계사 조실 승산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의 첫 번째 미국인 제자이자 관음선원(Kwan Um School of Zen, 원장 승산) 부원장인 바버라 로드(Barbara Rhodes, 법명 성향).

미국에서 가장 먼저 공식적인 선 마스터(master)로 인가받은 여성 중의 한 명인 바버라 로드. 1972년부터 한국 조계종 관음선원의 설립자인 승산 스님으로부터 참선을 배워 1977년 지도법사(Dhamma Teacher)로 인가를 받았다. 1992년 10월부터는 미

美여성 첫 선 마스터 바버라 로드 트라이시클 회견 내용 요약

국 관음선원의 부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플로리다, 시카고, 콜러라도, 코네티컷 등의 선센터와 선오미의 지도법사를 겸임하고 있다. 그녀는 1999년부터 로드 아일랜드(Rhode Island)의 가정과 병원 등에서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종간호를 펼치고 있는 간호사로서, 자리아타행(自利利他行)을 겸한 선 수행자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세계적인 불교 계간지인 <트라이시클(Triode)> 여름호에 게재된 인터뷰 내용중 주요 부분을 간추려 옮겨 실는다.



승산스님 첫 번째 미국인 제자 △승산스님의 첫 번째 미국인 제자인 관음선원 부원장 바버라 로드.

상상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에너지는 급격히 약해지고 만다. 그들은 오직 생존하기 위해 한 잔의 물을 마시고, 욕창을 치료해 주기만을 바랄뿐이다. 그들은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이 없다. 시간은 이미 왔다가 가버렸기에.

◆30여년간의 수행중 무엇이 당신을 변화시켰는가? 나는 엄청난 사랑과 동정심, 그리고 감사함을 느껴왔다. 승산 선사께서는 대자대비(大慈大悲) 즉, 위대한 사랑과 동정심을 늘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질수록 동정심도 커진다. 왜냐하면 사바세계는 고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에, 보다 숙련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스승님의 가르침과 내가 알게 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스승인 승산 선사께서는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답할 것인가?

여성도 깨달을 수 있다! 나는 화가 같다. 그러나 그가 지적한 것은 나의 '성별(性別)'이라는 정체성이었다. 여성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은, 남성 역시 깨달을 수 없다는 말과 같았다. 즉 (보살이 성이 없듯이) 성별을 떠난 인간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위대한 인식의 변화였다.

◆당신은, 자기 닮게 살기 위해서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어머니, 간호사, 선사로서의 당신 삶이 다른 이들의 요청에 현신한 것을 의미하는가? 승산 선사는 제자들에게 현실적인 사람이 되라고만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을 믿고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책임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다. 선원에서 자신을 믿고 자신이 누군가를 찾는 것은, 자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진실로 무명을 깨쳤다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남을 돕는 것이야 명백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도를 깨닫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명확한 명세를 하지 말라. 만약 당신이 모든 사람들을 돕겠다는 보살의 서원을 세웠다면, 새로운 의문이 떠오를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라고 우주는 매우 관대하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면, 그 대답은 저절로 나타날 것이고 사명감은 저절로 떠오를 것이다. 당신이 고른 직업과 사명은 핵심이

아닐 수도 있다. 당신의 일을 명석하게 자비심을 갖고 처리하라. 어디로 한 발 내딛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한, 당신은 나아갈 수 없다. 언제나 나는 누구인가? 를 질문하며, 수행해야만 한다.

◆“나는 누구인가?”란 의문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나는 누구인가?”란 의문은 당신을 이 순간 진실로 이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화두 참구를 하는 것은 지족(知足)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다. 지혜가 개발될수록 지족하는 마음이 갖게 되고, 그것은 당신이 어디로 다음 걸음을 떼어야 할 지 알게 한다. “나는 무엇인가?”란 화두는 모든 것에 만족하는 마음상태를 갖게 한다. 당신은 다른 곳에 있거나, 다른 사람이거나, 다른 무엇을 해야 한다고 원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순간순간, 당신이 직면하는 그 무엇에서 배워야 한다.

◆당신의 스승은 “내가 지옥에서 누군가를 구하려 한다면, 지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살의 서원은 나를 필요로 하는 어디든지 가라고 요청한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전통적인 가르침을 받았다. 나는 임종간호를 통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

무명 깨친 다음엔 남 돕는 일 해야 병원서 하는 모든 일 수행으로 생각

하기도 했다. 나의 능숙한 해결을 기다리는 많은 곳에서, 각각각색의 사람들을 지도하며 나는 어떤 상황, 어떤 사람들이 원하려다라 기꺼이 가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지옥에서 중생들을 돕는 지장 보살은 어느 곳든 달려가 중생을 구제하라고 서원을 일깨운다. 그 서원에 따라 나의 파트너와 딸들과 함께 병원에서 일할 때나 무엇을 하든 나는 수행으로 여긴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종말을 지켜본다. 그들이 눈을 감으며 “오, 무슨 일이 일어난거지? 시간은 어디로 가버린거야?”라고 말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질문을 하지도 못한 채 일생을 낭비했다. 나는 사람들이 어떠한 방향이 가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본다. 지금 즉시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수행 한번 해 본 적 없이 죽어간다. 죽음이란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나는 TV를 켜둔 채 죽어간 사람들도 본다. 그들은 전혀 이러한 의문을 품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삶이 끝날 때 의식이 명료해질 것이라고 영화를 통해

달라이라마 등·하게 공전 중, 복원작업 착수 중국 당국은 6월 26일 망명중인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거쳐왔던 2개의 공전에 대한 복원 작업에 착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역대 달라이 라마들이 수세기 동안 거쳐왔던 라사의 포탈라궁과 노블링카 공전을 복원하기 위한 작업에는 총 4천만 달러가 투입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 자제공덕회 자원봉사자들 美서 8년간 2000여명 무료 진료

대만에 본부를 둔 세계적인 불교사회복지단체인 자제공덕회(화주 증엄스님) 자원봉사자들이 미국 농촌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무료진료를 하며 우의를 다지고 있다고 '자제 저널'이 6월 29일 보도했다. 자제공덕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 버나 디노(San Bernardino) 마을에서 8년간 2000명에게 무료진료를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불교를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 위치한 자제공덕회 무료진료소의 200여 자원봉사자들은 1년에 30회 이상 1시간 30분이 걸리는 거리를 버스로 이동해 샌 버나 디노 마을의 렉키 농장에서 의료 봉사에 나섰다.

달라이라마 등·하게 공전 중, 복원작업 착수

중국어의 제법이 자기의 마음이 실재한다는 우리의 집착을 자아의 심층에서부터 일깨우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매마른 교리나 공허한 언어의 유희가 아닌 치열한 고행과 선정을 통해서 증득된 것임을 아상가는 보여준다. 유식불교의 성자, 아상가는 간다라 지방의 푸르사푸라, 지금의 파키스탄 페샤와르지역의 바라문가에서 태어났다. 아상가는 처음 실일체 유부(一切有部)에 출가하여 소승 경전에 정통하였으나 “휴가루를 아무리 정교하게 밟아도 결국 휴가루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티베트로 옮겨와 직접 가르침을 받기를 서원한다. 아상가는 이 서원을 실현하기 위해 안락한 사원을 떠나 쿠쿠라파다산속의 한 동굴에 은둔하여 삼년동안 온 힘을 다하여 선정을 닦고 기도를 올렸으나 아무런 응답도 얻을 수 없었다. 절망한 아상가가 굴 밖으로 산길을 방황할 때 세대의 날개 스치고 스쳐 울풍 패인 바위가 보였다. 아상가는 “나에게는 세대의 저런 열성조차 없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동굴로 돌아가 수행을 시작하고 다시 동굴로 돌아가 수행을 시작

특허 BBS 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현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승복 · 법복 · 잠옷 · 바랑 판매 안내

불교계와 저희 기원섬유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고급모직 (특징 - 통풍 잘됨, 가볍고 구김없음,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70,000) (동방바지 : ₩160,000) (두루막 : ₩140,000)
- 쿨맥스 (특징 - 품질 가장 우수함, 수분 발산율이 빠름, 구김없고 아주 가벼움, 물세탁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80,000) (동방바지 : ₩170,000) (두루막 : ₩150,000)
- 특수직 (특징 - 제일 가볍고 시원함,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40,000) (동방바지 : ₩130,000) (두루막 : ₩110,000)
- 아포텍스 (특징 - 몸에 붙지 않으며 까칠함,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60,000) (동방바지 : ₩150,000) (두루막 : ₩130,000)
- 광목 (특징 - 순수한국산, 손염색, 멋을 가진 승복)
(적삼, 바지, 조끼 : ₩170,000) (동방바지 : ₩160,000) (두루막 : ₩130,000)
- 장삼 (조계종, 태고종) - 춘추, 하절기(가사도 주문 받습니다.)
(고급모직 : ₩220,000) (특수직 : ₩200,000)
- 셔츠 (차이나, 라운드) : 가볍고 시원하며 물세탁 가능 : ₩30,000
- 겉망, 바랑, 나들이가방, 손가방, 보조가방
- 가볍고 예쁜 법복(회색, 밤색) : 조끼 바지 : ₩65,000

라철기 시원하게 보내실수 있게 저희 기원섬유가 책임지겠습니다.
스님께 감사글사 보시마련 심신(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세팔란을 소멸합니다.

● 잠옷(항균처리) - 남, 여(상, 하) : ₩65,000
특징 : 1. 특허청에 의장 등록된 옷자, 연꽃무늬가 은은하게 들어있음 (제0246178호)
2. 항균처리된 제품
항균처리란? 각종 박테리아와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시켜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청결한 몸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특수제품임
3. 고급섬유로 촉감이 아주 뛰어나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본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병영 B/D 302호
기원섬유 TEL : (053)764-4114 H·P : 011-9850-4400 지역 판매점 모집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